

李 春 載 先生님

광주 南漢山城 出身인 이 춘재先生님은 雨中에 찾아온 필자를 반가이 맞아 주신다. 아담하고 조용한 診療室를 찾는 이로 하여금 安定感을 준다.

1943年 鍾路 1街에서 이 춘재 齒科醫院을 開業, 본격적인 患者診療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현재에 (吉音齒科醫院) 이르기까지 熱과 誠을 다하여 患者診療에 臨하고 계시는 先生님은 차분하시며 活動的이시다.

1940年 경치전을 卒業하신 先生님은 空軍(1955年 대위계대) 당시 테니스를 즐겨하셨으며, 그후 10여년간 健康관리를 위하여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인왕산에 오르셨다고 한다. 그후 배드민톤을 즐겨하시어 여러 大會에 參加, 10여차례 우승하신 經歷도 갖고 계시며 요즘도 매일 체육관에 나가서 적당히 운동을 즐겨하시는 先生님은 용문배드민톤클럽고문, 노장 배드민톤 연합회 감사직을 맡고 계시서 그런지 남다르게 배드민톤에 대한 일가견을 갖고 계시다.

또한 健康관리에도 철저하시어 술·담배를 모르시고, 과식을 피하며 심리, 물리요법으로 항상 健康을 유지하여 질병을 모르고, 40代의 젊음을 갖고 계시는 先生님은 몸을 기계에 비유, 항상 가동하여 活動하고 계시며, 새로운 기분으로 患者개개인의 診療에 誠實히 일하고 계시다.

슬하에 자녀는 4남매로 모두 出家하여 건실한 生活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선생님의 65회 생신을 축하드리며...

◎ 1915年 5月 7日生(현 65세)

◎ 취미 : 음악감상

◎ 특기 : 배드민톤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59~5

길음치과의원 원장

94-0145



KUM KANG
Dental Lab

261-0673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종로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